



## 20250831 주일

제목: 하나님의 전신 갑주

본문: 에베소서 6:10-17

설교: 이성훈 목사

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심리학자

두그룹 학생

한 그룹 의사가운, 한그룹 평상복

집중력 테스트했는데 의사가운 그룹이 집중력과 주의력이 높고 실수가 줄었습니다 착용자  
인식현상

바울은 입으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새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서 쓴 에베소서

24시간 로마군인이 붙어있었을 겁니다

그 로마 겹옷을 쳐다보기도 싫었을텐데 바울이 주 안에서 퉁크하고 묵상한 결과가 오늘 말씀에  
담겨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1. 끝까지 서게 합니다

바울의 끝으로는요 헬라어를 보면 끝까지 들을 말 들었으니 이제부터 인생 끝까지 강건해져라  
주님의 힘으로 라는 응원메세지입니다

수동태로 받아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머리를 따라갈 수 없어 낙심이 됩니다. 힘을 내야되는 것을 몰라서 안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할 충실히 해야하는거 아는데 힘이 안나는거 어떡하겠어요. 우리 존재와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고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존재이기에 주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바울이 쉽게 쓰면되는데 마음을 담아내기 부족해서 간절히 표현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바울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힘의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단어 몇개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누워있거나 주저앉지 말고요.

우리 인생은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대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심각한 전쟁의 현상입니다. 악한영, 권세, 주권자들... 천국과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현상입니다.

문제와 갈등, 고민이 없는것을 우리가 꿈꾸지만 하나님이 택한 우리 성도의 인생에 전투가 없다면 사실 영생이 없는 인생인 겁니다

마귀의 간계가 너무나 치밀합니다. 의도적 악보다 더 심한 것은 부지 중에 습관, 법제화된 악입니다. 나라흥친 도둑은 왕이 됩니다. 마귀들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말, 행동, 감정을 보고 잇다가 흑 들어옵니다. 우리의 연약한 상처와 아픔들을 놓치지 않고 자기애가 가진 활과 상처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좌절합니다. 인식이 안되는 특징은 이미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사실 승리했습니다. 그 사실이 인정이 안되고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이기셨는데 사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 이것이 이긴싸움이 맞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하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쳐들어가는 공성전이 아닙니다. 공격하는 자리가 아니구요 수성전입니다. 이미 이겨서 얻어 놓으신 구원의 성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 서 잇으라고 너무 힘들고 주저앉고 눕고 싶지만 끝까지 그 자리에 잇으라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잘 서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갑옷 입고 잘 버티시면 좋겠습니다.

[적용질문 사진]

## 2.내가 맞춰야 합니다 (내가 갑옷에 맞춰야 한다)

군인을 알아보는 것은 머리로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군인을 알아보는 표식은 벨트 엽습니다. 왜 바울은 진리를 허리띠에 비유할까요 성도의 모든 삶이 진리로 시작하고 진리로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묻고 말을 동여매고 행동을 묶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은 생각, 행동, 말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넣어두고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전신 갑주를 입는 첫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나면서부터 따지는 문화에 태어나고 거기에 사로잡혀사는 것이 우리인생이고 내가 옳다 하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이 되고 더 큰 악을 저지르는 우리 인생입니다. 정의라는 개념을 갖고 닦고 훈련하면 이것이 고쳐질 것인가..? 더 세련되고 포괄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것이다. 합니다

모든것을 통제하는 사회가 되면 더 좋은 나라가 될것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는 한계가 있고 옳고 그름의 선악과 같은 저주의 한계를 벗어 날수 없고 내가 맞고 네가 틀렸으니 너가 나한테 맞춰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는데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이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나보다 옳고 내가 잘못이고 내가 짊어져야 할 문제다 내가 감당할수 밖에 없는 문제다. 구원의 희생을 하게하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신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넘어서서 당신이 나보다 옳다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해야 하나요 인본,윤리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을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 사건 왜 이런 회사, 학교 왜 나를 아프게 하셨고 왜 저런 배우자며 이해가 안되지만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정함에 있어서 저보다 옳으십니다. 죄인인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팅을 하셧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제 옆에 두신 것도 주님의 세팅이기에 주님이 옳습니다 하며 호심경으로 삼는 것입니다.

평안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들게 하시는 겁니다. 평안의 신을 신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몸에 맞는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이즈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내 생각을 맞춰야만 진리의 사람이 되고 판단을 하나님의 의에 맞춰야만 의의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에 맞춰야만 평안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입맛 하나도 바꾸기 힘든 우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매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매일 하는 큐티인 겁니다. 매일 나를 돌아보고 것 즉 큐티가 진리의 훈련인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질문 사진]

### 3. 내가 가져야 합니다.

전쟁터에서는 갑옷을 벗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방패처럼 성도의 모든 것을 지켜줍니다. 불화살 같은 모든 공격에서 하나만 맞아도 주저앉고 말한마디에 일주일 우울해 하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건 어쩔 수 없지만 더이상 몸을 불태우지 않도록 막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내 생각을 흔드는 사탄의 불화살에 불탈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고 지키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방패를 들어야만 불화살을 다 소멸해서 인생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의미심장합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은 다름아닌 구원을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검 반격할 무기는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세가지를 가지라 합니다. 빼앗아서 갖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의 의미입니다. 공통점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잘 받아서 들고 누리는 것이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가지라는 명령은 좋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지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시제가 부정과거인데 지금 당장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방패, 투구, 검을 내려놓으면 안됩니다. 내려 놓은 사람은 당장 들으라는 겁니다.

땅에 놓으면 그냥 금속일 뿐입니다. 잠시 놓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버뽀다는 이유로 중요한 일을 이유로... 구원에 대한 생각... 을 다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수성전이고 이긴 싸움을 지키는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질문 사진]